



즉시 배포용: 2015년 12월 14일

주지사 **ANDREW M. CUOMO**

## **CUOMO** 주지사, 뉴욕 농산물 판매가 미국 평균을 넘어섰다고 발표하다

### *뉴욕 산업이 신기록을 세우며 2010년 이후 17억 달러의 현금 수입 인상을 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농산물 판매액 증가가 미국 평균을 넘어서서 현금 수입이 뉴욕주에서 **36%**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32%**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뉴욕주 농장주들은 또한 판매에 따른 현금 수입이 2010년의 47억 달러에서 늘어난 **63억6천만 달러**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농작물, 가축 및 기타 생산물 판매로 인한 총수입이 거의 **17억 달러**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뉴욕주는 고품질 제품과 수상 경력에 빛나는 맛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한 농산물 기업의 본고장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규제 개혁, 비용 절감, 농업 투자를 위한 이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오늘의 결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농장주들이 또 다시 성공적인 한해를 보낸 것을 축하 드립니다.”

**Cuomo** 주지사는 취임한 이래로 뉴욕주의 농업 경제를 최우선사항으로 삼고, 농업 연구를 지원하고 지역 재배 및 생산 식품을 홍보하고, 호황을 맞고 있는 크래프트 음료 산업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 농장주들과 농업기업들이 파머스 마켓, **Taste NY** 스토어 및 조달 기회 증대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뉴욕의 평균 총소득이 크게 증가했고, 뉴욕주의 최우수 상품 상당수의 판매고가 크게 증대하였습니다. 2010년 이래로, 다음 상품은 가장 큰 판매 증가를 이뤘습니다:

- 가금류와 난류 **63%** 증가, 2억600만 달러;
- 복숭아 **80%** 증가, 1,260만 달러;
- 꿀 생산 **59%** 증가, 900만 달러 육박;
- 가축 생산 **132%** 생산, 4억1,500만 달러;
- 건초 생산 **173%** 생산, 1억4,700만 달러.

같은 기간 동종 상품에 대한 미 전역 수치:

- 가금류와 난류 **39%** 증가;
- 복숭아 **2%** 증가;

- 꿀 생산 38% 증가;
- 가축 생산 59% 증가;
- 건초 생산 63% 증가.

뉴욕 낙농업은 또한 2014년에 기록적으로 높은 낙농 제품 가격을 일궈내어 뉴욕주 농업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주지사의 Taste NY 이니셔티브는 2013년 출범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서 이 행사들과 요리 투어 및 여러 Taste NY 스토어를 통해 우리 지역 생산자와 재배자들을 전세계 소비자들과 연결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주는 푸에르토리코에 최초의 뉴욕주 외부 스토어를 여는 것을 포함해 네 곳의 Taste NY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및 우리의 교통 허브를 따라 11곳의 Taste NY 스토어가 개장되어 있어 여행객들이 뉴욕주 가내 재배 및 가내 생산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Todd Hill에 있는 Taste NY 시장은 최근 100만 달러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뉴욕은 또한 2015년에 세 곳의 Taste NY Culinary Tours를 개최하여 100여개의 레스토랑을 참여시켰습니다. 상당수가 다운스테이트에서부터 Finger Lakes, Hudson Valley, Long Island 지역에서 영업하는 레스토랑 들로, 해당 지역 고유의 품질 좋고 다양한 농산물을 경험하고 지역 원자재 공급을 격려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우리 농산물 생산자와 재배자들이 뉴욕시 시장에 들어오고 우리 학교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Farm to School 프로그램은 Pre-K-12 학교가 현지에서 재배된 건강에 좋은 식품을 학교 메뉴로 조달하고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어 농산물 수요를 올릴 것입니다. 이 밖에도, 뉴욕주 특히 다운스테이트에서의 파트너십으로 인해 농산업계가 상품과 제품을 뉴욕주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파머스 마켓에 납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은 또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농장 기반 음료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입법 및 규제 정책의 정비도 뉴욕주의 기업 풍도에 상당한 개선과 맞물려 크래프트 생산자들의 기록적인 성장을 자극했고, 농산물 생산자들의 수요를 올리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뉴욕주 농산업은 154% 성장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현재 800개 이상의 맥주, 와인, 증류주 및 사과주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어서 연간 뉴욕의 경제에 270억여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농업장관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 경제 발전과 뉴욕주 농장주의 혁신 및 복원성 증대에 대한 주지사의 약속으로 뉴욕주는 성공적인 패를 쥐고 있습니다. 농업 경제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기록적인 판매고와 많은 주요 상품 판매에서 상당한 증가 경향으로 뉴욕은 농업에서 계속 리더가 될 것입니다.”

NYFB(New York Farm Bureau)의 Dean Norton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 판매고의 증가는 이곳 뉴욕주의 농업이 뉴욕주 시골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뉴욕주 곳곳에 있는 농장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근면한 노력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또한 뉴욕주가 가족 농장에 대한 기업 풍도를 개선하고 농업 홍보에 투자할 때  
무엇이 가능한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넬대학교 **Todd Schmit** 교수가 행한 연구에 의하면 뉴욕주의 농업 부문은 주 경제에  
강력한 복합적 영향을 미칩니다. 농업 산출에 소비되는 1달러마다 비농업을 위해 추가  
**\$0.43**가 창출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 내에서 창출되는 새 일자리 1개마다 비농업  
일자리 **0.8**개의 창출을 이끕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 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